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이 시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이 개발한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그리고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의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version: IPPA-R)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는 과보호군, 적절한 유대군, 애정 없는 통제군, 결여된 유대군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애착은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유대에 대한 지각과 이와 관련된 그들의 성장·발달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부모-자녀 결합 형태,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 교신저자 : 이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57 이화빌딩
Tel : 02-3668-4307, E-mail : sieunlee@knou.ac.kr

대학생 시기는 자기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년들은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점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고, 역할의 변화에 따른 적응 문제, 확대된 교우관계, 이성문제, 진로문제, 가치관 문제 등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에 놓이게 된다(임성모, 2000).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틀 속에서 생활하다 갑작스럽게 청년후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성장 및 발달을 결정짓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애착 이론은 부모-자녀 관계와 한 개인의 성장·발달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적용 가능한 흥미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애착 이론은 Bowlby와 Ainsworth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아동과 양육자 간 유대의 발달이 아동의 자기개념(self concept) 형성과 사회적 세계를 보는 관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즉, 애착 이론의 중심 가정은 유아의 초기 경험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고, 애착 인물의 유용성과 반응성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Lopez, 1995). 더 나아가 내적작동모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이와 일치된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인지체계로 작용하

기 때문에,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때 발달된 작동모델은 이후 성인의 대인성격으로 연결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즉, 애착이론에 의하면, 초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는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지금까지의 대학생에 대한 애착 연구에서는 초기 양육자와의 유대, 즉 애착이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적 이슈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애착은 분리-개별화(김효정, 2009; 장휘숙, 2002; Noom, Dekovic, & Meeus, 1999), 자아정체감(장연주, 2008; 장휘숙, 2000;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이성 관계(김수경, 2003; Hazan & Shaver, 1987, 1990), 진로 관련 변인(장지선, 2003; 최옥현, 2006), 대학생활 적응(김소라, 2003; Rice, Col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정신 병리(이지연, 2006; 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 Hart, 1992)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대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관점과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실질적인 자녀 양육과 대학생들의 성장·발달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류는 Symonds가 수용-거부, 지배-복종 2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발표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Schaefer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까지 이르는 30년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그 결과 애정-거

부와 자율-통제의 양극화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정은선, 2008 재인용). Becker는 제한-허용, 온정-적대, 과보호-방임의 3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다시 민주적, 관용적, 신경과민적, 무관심, 권위주의, 엄격한 통제, 과보호, 조직적 효율성의 8개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하였고(백승진, 2008 재인용), Baumrind(1971)는 통제, 성숙에의 요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명확성 및 부모의 양육성의 4차원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가 있는 양육, 권위적 양육, 허용적 양육의 세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는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통해 부모 양육의 2가지 측면을 돌봄과 과보호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돌봄은 부모의 애정, 정서적 따뜻함, 공감 및 친밀감이고 과보호는 부모의 통제, 과보호, 침입, 과도한 접촉, 아기 취급, 독립적 행동의 방해 등을 의미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양육태도의 차원이나 유형은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분류 방식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애정과 통제의 요소가 포함된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 PBI 역시 돌봄 차원에 애정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보호 차원에는 독립성을 방해하는 지나친 통제를 과보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BI는 애착이라는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의 결합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측정도구이다. 또한 PBI는 초기 부모와의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자녀가 16세까지의 부모 양육 방식을 회고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가 보고한 것보다 자녀에게 더욱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Conzales, Cauce, & Mason, 1996; Paulson, 1994).

더욱이 PBI는 회고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된 양육 방식은 편향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적고 안정적인 측정치라 할 수 있다. Gotlib, Mount, Cordy, 그리고 Whiffen(1988)은 PBI를 사용하여 우울집단과 우울이 경감된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이 회고적으로 보고한 분노 양육 행동을 서로 비교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세 집단 모두 시간 경과에 따른 부모 양육 행동 보고에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안정적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우울이 경감된 집단은 우울이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울했을 때와 현재의 부고 양육행동 보고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Gerlsma, Krammer, Sholing, 그리고 Emmelkamp(1994)는 현재 기분 상태가 부모 양육 행동을 회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 양육 방식을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와 EMBU(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를 일반인과 사회공포증 환자에게 실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분에 의한 기억 편향의 효과가 아주 작게 나타났으며, 사회공포증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불안과 우울의 기분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전과 후에 보고한 부모 양육 방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PBI는 아버지 유대와 어머니 유대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어, 초기 애착을 형성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과거 연구의 대다수는 모의 양육태도에 비중을 두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따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할은 경제적인 사회활동이었고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전통적인 역할로 인식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부,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따라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 남성의 인식 변화 등에 의해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많이 없어졌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의 양육태도만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부, 모의 양육태도를 따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보다 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합 패턴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현재 사회적 경향에 비추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김지근, 이기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지각된 초기 양육자와의 유대감이 현재 자기에 대한 관점과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PBI를 통해 우선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형태의 조합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에 대한 관점으로써 자기효능감과 타인과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써 또래에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이다(Bandura, 1977). 즉

개인이 어떤 기술을 소유하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다. 자기효능감은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휘된다(Bandura, 1986).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처음에는 상황 특수적인 개념이었으나, 일반성 차원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나오게 되었다. Sherer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일반적인 성격특성의 하나로써 개념화시켰다. 그는 상황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이 비록 예측자로서의 역할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개인의 특성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사전 경험이 없는 과제에 대한 수행이나 전반적인 수행형태를 예측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차정은, 1997 재인용)

Bandura(1977)에 의하면 초기 자기효능감 경험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한다. 아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하기 위해 그 상황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얻어야하는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런 능력들을 발달시켜 나갈 때에 아동의 필요와 만족은 어른들에 의해서 충족되게 된다.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기효능감 경험은 사회적,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는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 정보원인 다양한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 준

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개인 탄력성(resilience)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된다(Turner, Norman & Zunz, 1995). 따라서 삶의 영역이 확대되며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는 대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자기에 대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윤병두(1995)는 수용적·자율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아동들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황혜자와 최윤희(2003)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개방, 친애, 자율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노호은과 박경자(2001)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모두 성취-비성취 영역과 자율-통제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박순길(2003) 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이 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적으로 지각한 청소년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취감을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지각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해주며 양육한다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동영, 1997).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발달의 중추적 역할은 부모가 담당하고 있지만, 많은 이론가들은 또래와의 경험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며 또래와의 편안한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정체감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Berndt, 1989; Youniss & Smoller, 1985). 즉, 또래에게서 느끼는 애착은 사회적 관계를 습득하게 하고 자신이 주위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게 되며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Bukowski & Hoza, 1989). 이처럼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동안 자기 가치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진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심리·사회적으로 독립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중요한 발달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연령상으로는 성인초기 단계에 속해 있지만 발달단계 특성상 청년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

부모로부터의 자율성에 대한 증가되는 압력은 애착 인물로 동료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건강한 압력을 만들어 내게 된다. 즉, 동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동안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활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기는 애착 욕구와 행동을 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애착 욕구와 행동이 점차 동료들에게 옮겨가는 시기이다(Allen & Land, 1999).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또래 관계는 점차 중요해지며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준다(Buhrmester & Furman, 1987).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있어 또래와의 애착 관계는 성인으로서

의 인간관계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간의 관련성은 두 변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부모 애착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통해 그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조화롭고 협조적으로 행동하며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반면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의 거절경험을 갖게 되어 또래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또래관계에 적용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거부당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Goldberg, 1991; Rubin & Lollis, 1988) 또한 전효정과 이귀옥(2002), 홍주영과 도현심(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이후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건강한 또래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모의 지속적인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며 청소년기를 지나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어떠한 하위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결합 패턴이 대학생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별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

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라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는가?
2.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유형별 하위집단들은 자기효능감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유형별 하위집단들은 또래애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총 32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66명(51.6%), 여학생은 156명(48.4%)이었다. 평균연령은 21.38세(표준편차 2.38)이며, 학년은 1학년은 65명(20.2%), 2학년은 130명(40.4%), 3학년은 60명(20.2%), 4학년은 60명(18.6%)이었다.

측정 도구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16세 이전까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25문항은 12문항의 돌봄 척도와 13문항의 과보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차원은 일반적 수준의 온화함과 애정,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무관심과 무시와 관련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보호 차원은 부모의 통제, 간섭, 과잉보호,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제적이고 침입적이며 과보호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 수준이 높고 과보호 수준이 낮을수록 적절한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6, .86, .89, .84이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떤 특정과제나 상황에 대한 수행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행동에 있어서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총 24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은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을 측정하며,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과제난이도 선호는 목표 설정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나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이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5, .84, .85이었다.

또래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의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version: IPPA-R)을 옥정(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또래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은 의사소통 9문항, 신뢰감 9문항, 소외감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또래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또래 반응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외는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혹은 또래를 향한 분노를 측정하고 있다. 의사소통과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을수록 애착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래애착 총점에서는 소외감 척도를 역산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전체 또래애착의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고, 의사소통, 상호신뢰, 소외감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3, .86, .57이었다.

자료 분석

대학생들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라 몇 개의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유대의 4가지 하위 요인

(부 돌봄, 부 과보호, 모 돌봄, 모 과보호)의 점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 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맞는 거리계산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병합적 군집 방법(agglomerative clustering)을 사용하였으며, 군집화 기준으로는 워드 연결 방법(Ward's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거리측정 방법(Measure Interval)은 제공한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군집 수는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로 설정하였으며, 최종 유형으로 결정된 4개 군집의 군집타당화를 위해 네 개 군집의 부·모 유대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사후 검증을 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군집 분석을 통해 구분된 네 개 집단의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을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하여 비교하고, Duncan을 실시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부·모 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군집

대학생들의 부·모 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2개 군집에서는 군집 1이 207명(64.3%), 군집 2가 115명(35.7%)이었으며, 3개 군집에서는 군집 1이 166명(51.6%), 군집 2가 115명(35.7%), 군집 3이 41명(12.7%)으로 나타났다. 4개 군집의 경우는 군집1이 95명(29.5%), 군집 2가 115명(35.7%), 군집 3이 41명(12.7%), 군집 4가 71명(22.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때 군

집별 부·모 자녀 결합 형태의 차별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고 개념적으로 잘 설명되어 4개의 군집을 최종 유형으로 결정하였다. 4개 군집에 속한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군집 1은 남학생이 57명(60.0%), 여학생이 38명(40.0%), 군집 2는 남학생이 49명(42.6%), 여학생이 66명(57.4%), 군집 3은 남학생이 21명(51.2%), 여학생이 20명(48.8%), 군집 4는 남학생이 39명(54.9%), 여학생이 32명(45.1%)이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hi^2 = 6.724, p > 0.5$).

각 군집에 따라 4개의 군집 변인(부 돌봄, 부 과보호, 모 돌봄, 모 과보호)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점수(z)로 변환하고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점수들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로 설정되었다. 또한 각 군집별 명명에 있어서는 부모-자녀 결합 형태를 네 가지 차원, 즉 높은 돌봄-낮은 과보호 유형은 '적절한 유대(optimal bonding)', 낮은 돌봄-높은 과보호 유형은 '애정 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 높은 돌봄-높은 과보호는 '애정 깊은 구속(affectionate constraint)', 낮은 돌봄-낮은 과보호는 '결여된 혹은 약한 유대(absent or weak bonding)'으로 구분하고 있는 Parker 등(1979)과 Rey(1995)의 네 가지 차원을 참고로 하였다.

군집 1은 부 돌봄과 모 돌봄은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가 높게 나타나 '과보호군'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부 돌봄과 모 돌봄은 높게 나타나고,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가 낮게 나타나 '적절한 유대군'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부 돌봄과 모 돌봄은 낮게 나타나고,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가 높게 나타나 '애정 없는 통제군'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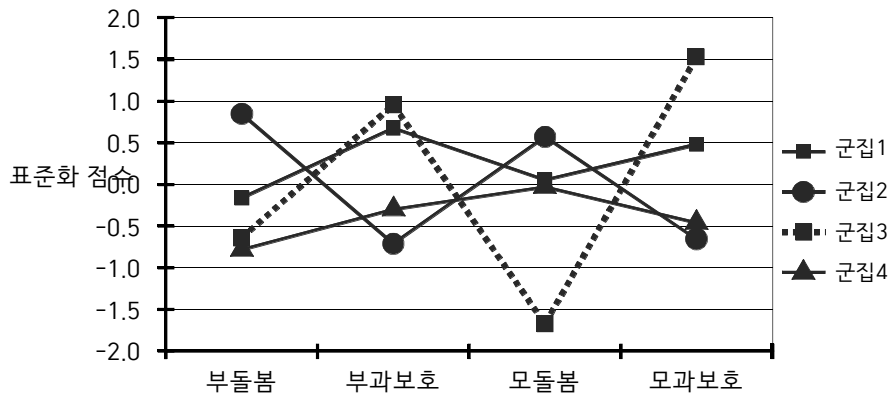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군집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부 돌봄, 부 과보호, 모 돌봄, 모 과보호가 대체로 모두 낮게 나타나 ‘결여된 유대군’이라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별로 부모 유대의 네 가지 하위 차원을 차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사후검증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 돌봄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87.60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여된 유대군과 애정 없는 통

표 1. 각 군집별 부모유대의 차이 분석

	군집 1 과보호군 (n=95)	군집 2 적절한 유대군 (n=115)	군집 3 애정 없는 통제군 (n=41)	군집 4 결여된 유대군 (n=71)	F
	M (SD)	M (SD)	M (SD)	M (SD)	
부 돌봄	2.68b (.38)	3.20c (.32)	2.43a (.52)	2.36a (.35)	87.603***
부 과보호	2.31c (.33)	1.66a (.31)	2.44d (.46)	1.85b (.32)	87.583***
모 돌봄	3.12b (.31)	3.36c (.31)	2.32a (.31)	3.08b (.39)	96.634***
모 과보호	2.32b (.30)	1.77a (.31)	2.83c (.42)	1.86a (.28)	139.581***

*** $p<.001$

주. Duncan 사후검증: a<b<c<d

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 과보호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87.58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보호군, 결여된 유대군, 적절한 유대군 순으로 나타났다. 모 돌봄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96.63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 과보호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39.58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여된 유대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 유대의 네 가지 하위 차원 모두 4개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군집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군집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각 군집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사후검증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5.260,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1.590,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과 결여된 유대군은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8.309,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표 2. 각 군집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분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과보호군 (n=95)	적절한 유대군 (n=115)	애정 없는 통제군 (n=41)	결여된 유대군 (n=71)	
	M	M	M	M	
	(SD)	(SD)	(SD)	(SD)	
자신감	3.42 ^a (.86)	3.95 ^b (.88)	3.12 ^a (.98)	3.77 ^b (.93)	11.590 ^{***}
자기조절 효능감	4.09 ^b (.60)	4.34 ^c (.54)	3.86 ^a (.61)	4.06 ^b (.63)	8.309 ^{***}
과제 난이도 선호	3.37 ^b (.89)	3.51 ^b (.83)	2.82 ^a (1.04)	3.34 ^b (.90)	6.053 ^{**}
자기 효능감	3.74 ^b (.55)	4.05 ^c (.50)	3.43 ^a (.52)	3.82 ^b (.56)	15.260 ^{***}

* $p<.05$, ** $p<.01$, *** $p<.001$

주. Duncan 사후검증: a<b<c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6.053, p<.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또래애착의 차이

각 군집에 따른 또래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사후검증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또래애착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6.575,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9.324,$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호신뢰는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3.934,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외감은 각 군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5.521, p<.001$)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높게 나타났고, 적절한 유대군과 결여된 유대군이 낮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표 3. 각 군집별 또래애착의 차이 분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과보호군 (n=95)	적절한 유대군 (n=115)	애정 없는 통제군 (n=41)	결여된 유대군 (n=71)	
	M	M	M	M	
	(SD)	(SD)	(SD)	(SD)	
의사 소통	3.58 ^b (.46)	3.84 ^c (.50)	3.41 ^a (.57)	3.61 ^b (.52)	9.324 ^{***}
상호 신뢰	3.73 ^{ab} (.54)	4.11 ^c (.48)	3.59 ^a (.60)	3.89 ^b (.54)	13.934 ^{***}
소외감	2.63 ^b (.43)	2.30 ^a (.45)	2.69 ^b (.46)	2.33 ^a (.41)	15.521 ^{***}
또래 애착	3.57 ^a (.39)	3.90 ^c (.41)	3.44 ^a (.47)	3.73 ^b (.42)	16.575 ^{***}

* $p<.05$, ** $p<.01$, *** $p<.001$

주. Duncan 사후검증: a<b<c

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라 군집화한 결과 대학생 집단을 크게 과보호군, 적절한 유대군, 애정 없는 통제군, 결여된 유대군의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과보호군’은 부·모 돌봄은 평균에 가까운 반면, 부·모의 과보호가 높게 나타난 집단으로, 부·모의 통제 및 간섭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이다. ‘적절한 유대군’은 부 돌봄과 모 돌봄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가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특징적이다. ‘애정 없는 통제군’은 부 돌봄과 모 돌봄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부 과보호와 모 과보호가 높게 나타나 정서적으로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과도하게 통제하고 의존심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특징적인 집단이다. ‘결여된 유대군’은 부 돌봄, 부 과보호, 모 돌봄, 모 과보호가 대체로 모두 낮게 나타나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지만 정서적으로 냉정하며 무관심한 양육태도가 특징적인 집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Parker 등(1979)과 Rey (1995)의 네 가지 차원, 즉 높은 돌봄-낮은 과보호 유형은 ‘적절한 유대(optimal bonding)’, 낮은 돌봄-높은 과보호 유형은 ‘애정 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 높은 돌봄-높은 과보호는 ‘애정 깊은 구속(affectionate constraint)’, 낮은 돌봄-낮은 과보호는 ‘결여된 혹은 약한 유대(absent or weak bonding)’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애정 깊은 구속’에 해당되는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대신 평균에 가까운 부모의 돌봄과 함께 높은 과보호가 특징인 ‘과보호군’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 집단의 빈도를 살펴보면, 과보호군이 95명(29.5%), 적절한 유대

군이 115명(35.7%), 애정 없는 통제군이 41명(12.7%), 결여된 유대군이 71명(22.0%)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유대군이 전체의 35.7%가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높은 과보호를 보이는 ‘과보호군’과 ‘애정 없는 통제군’의 분포가 전체의 42.2%(136명)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의 문제를 지닌 양육태도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며, 부모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보호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삶의 모든 문제를 빼앗아 자신이 처리해 주므로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어, 발달단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며 부모와 공생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불안감과 불안정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보호적 부모들은 자녀의 심리적 이탈을 허용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부모의 자기만족을 위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취하게 된다. 특히 과보호하는 부모들은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부족할 때 과잉보호를 하게 된다(김춘경, 2000).

특히 우리나라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게 기른다는 철학이 가세해서 공부하라는 성화 이외에는 아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고 멋대로 자라나게 방임하는 풍조가 과보호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정범모(1997)는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과 역할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 지 알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과보호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로 인한 야기될 수 있는 자녀의 문제, 그리고 부모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지각에 관한 연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원영(1983)은 Schaefer의 MBRI 척도를 사용하여 서울시 거주 유치원 유아의 어머니 793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주로 애정-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0여 년의 세월이 더 지난 박은정(1996)의 연구에서도 역시 MBRI 척도를 사용하여 대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니 1,676명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는데, 애정-통제적인 유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원영(1998)은 한국 어머니의 주된 양육태도로서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현상을 한국인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情과 恨의 심정 심리가 '우리성' 및 '체면' 심리와 연계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애정 깊은 구속'에 해당되는 유형이 나타나지 않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각을 연구한 것으로, 자율성과 개별화를 추구하는 것이 발달상 중요한 발달과제인 대학생들이 보호(통제)하는 부모에게 동시에 돌봄(애정)을 지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부모의 과보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집단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김지근과 이기학(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을 살펴본 결과, 한 가정 내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하는 집단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Buss(1984)는 부·모의 양육 스타일의 유사성은 사회화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녀 양육에 있어 유사한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한다 (Simons & Conger, 2007).

둘째, 자기효능감은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가 특징인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가 특징인 애정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적절한 유대군과 결여된 유대군은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용적·자율적 양육태도로 지각한 아동들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윤병두(1995)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개방, 친애, 자율로 지각하

고 있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남을 밝힌 황혜자와 최윤화(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아동이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아이들이 세상을 탐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들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실수로부터 배우는 내적 강인함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열등감과 신경증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Nelson과 Erwin(2000)의 견해, 그리고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 환경에 대한 탐색, 자신감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한 Ainsworth(1982)의 견해에서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신감의 하위 영역에서는 결여된 유대군이 적절한 유대군과 함께 높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집단의 독립심과 자율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셋째, 또래애착은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호신뢰는 적절한 유대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없는 통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외감은 애정 없는 통제군과 과보호군이 높게 나타났고, 적절한 유대군과 결여된 유대군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공감적이며 자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긍정적인 사회적 기대의 토대가 되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래와 함께 있을 만하다는 기대를 갖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의 하위영역은 돌봄과 과보호의 차원이 모두 관련되는 반면, 소외감의 척도는 과보호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형태를 자연발생적인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애착 이론의 중심 가정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토대로 실제 부모-자녀 결합 형태를 자기에 대한 관점 및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특유의 과보호적인 양육 실태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되는 것이 중요한 발달적 이슈인 대학생들에게 있어 부모의 과보호는 자기개념과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을 지닌 부모 혹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자 부모 교육을 받는 부모들에게는 자녀 중심의 양육방식으로 선택한 그들의 과보호가 자녀의 성장·발달의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 내담자들을 상담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관심이 그들에게 과보호로 지각됨으로 인해 부모에게 갖게 되는 양가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인식·통합하여 원활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대학생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되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자녀 결합 형태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가 한 개인의 자기개념과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통합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로써,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자녀의 주관적 지각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욱 더 ‘과보호’로 지각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양한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함께 부모 및 가족 면담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관계성을 연구한다면,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에 따른 심리적 건강은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과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비교하여 부모양육에 대한

시대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의 형태는 다소 다르나, 부·모의 과보호가 특징적인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전체의 42.2%(136명)나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점차 핵가족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특징과 한국 특유의 부모-자녀 일체감으로 인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박아청, 1998; 정은영, 장성숙, 2008). 따라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소라 (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2003).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차정은 (1997).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지근, 이기학 (200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과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1183-1200.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0.
- 김효정 (2009).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호은, 박경자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49, 55-71.
- 박은정 (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진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길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1.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두 (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중앙대학교, 13, 1-18.
- 임성모 (2000). 비행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주 (2008).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230.
- _____ (2002). 청년 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전효정, 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정은선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범모 (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 나남 출판.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옥현 (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

-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혜자, 최윤희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2(1), 285-304.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 3-30). New York: Basic Book.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glewood Cliffs. NJ: Prentice.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3.
- Berndt, T. J.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Ed.), *Children's social net works and social support* (pp.308-331). New York: John Wiley.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J. Berndt & G. Ladd(Ed.),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pp.15-45). New York: Wiley.
- Buss, D. M. (1984). Toward a psychology of person-environment(PE) correlation: The role of spous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61-377.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2-34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644-663.
- Conzales, N. A., Cauce, A. M., & Mason, C. A. (1996). Interobserver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parental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frican American mothers, daughters and independent observers. *Child Development*, 67, 1483-1498.
- Gerlsma, C., Krammer, J. J. A., Sholing, A., & Emmelkamp, P. M. G. (1994). The influence of mood on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159-172.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adian*

- Journal of Psychiatry*, 36, 393-400.
- Gotlib, I. H., Mount, J. H., Cordy, N. I., & Whiffen, V. E. (1988).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early parent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2, 24-27.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_____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Kenny, M. E., & Hart, K. (199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s in an inpatient and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521-526.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ce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opez, F. G. (1995). Contemporary attachment theory: An introduction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395-415.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66-104.
- Nelso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Prima Publishing.
- Noom, M.J., Dekovic,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3.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ulson, S. E. (1994).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and parental involvement with ninth-grade students' achie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50-267.
- Rey, J. M. (1995). Perceptions of poor maternal care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4, 94-100.
- Rice, K. G., Cole, D. A.,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5.
- Rubin, K. H., & Lollis, S. P. (1988). Beyond attachment: Some thoughts about socio-emotional continuitie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219-252). Hillsdale, NJ: Erlbaum.
- Simons, L. G., & Conger, R. D. (2007). Linking mother-father differences in parenting to a typology of family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28(2), 212-241.

- Turner, S., Norman, E., & Zunz, S. (1995). Enhancing resiliency in girls and boys: A case for gender specific adolescent prevention programming.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6(1), 25-38.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 father,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9. 3. 3

수정원고접수일 : 2009. 4.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Peer Attachment by Parental Bonding Relationship

Si-Eun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natural groupings of 322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in terms of their parental bonding relationship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on the basis of the students' scores on self-efficacy and peer attachment. The instruments included: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 General self-efficacy, (c)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Overprotection Group, Optimal Bonding Group, Affectionless Control Group, Absent Bonding Group. Second, Optimal bonding group showed the highest self-efficacy, but Affectionless Control Group showed the lowest self-efficacy. Third, Optimal bonding group showed the highest peer attachment, but Affectionless Control Group and Overprotection Group showed the lowest peer attachment.

Key words : *parental bonding relationship, self-efficacy, peer attachment*